

여름보다 뜨거운 '소형 SUV 전쟁'



▲쌍용차 티볼리



▲기아차 스토닉



▲현대차 코나

'티볼리 천하' 비켜라!... '스토닉' '코나' 거침없이 하이킥

소형 SUV 시장, 지속 성장하는 블루오션 '티볼리' 디자인 강점 앞세워 시장 장악

기아 스토닉 가격·현대 코나 사양 강점 QM3·트렉스 리뉴얼 통해 시장 방어



국산 소형 SUV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쌍용차 티볼리가 독주하고 르노삼성 QM3와 쉐보레 트렉스가 뒤를 따르던 국산 SUV 시장은 현대차 코나가 지난달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기아차 스토닉이 지난달 27일부터 사전계약을 실시하면서 시장 재편에 돌입했다.

소형 SUV가 속한 B세그먼트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브랜드의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하는 차종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5년간 10배나 성장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이다. 향후에는 중형 SUV보다 소형 S

UV가 더 잘 팔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산차 메이커들이 소형 SUV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코나와 스토닉은 과연 티볼리를 왕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주요 특징을 살펴봤다.

●연비와 가격에서 우위, 기아차 '스토닉'

기아차 스토닉은 국산 디젤 소형 SUV로는 유일하게 1900만원 내외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아반떼 스마트 등급(1820만원)에서 약간만 더 주면 소형 SUV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젊은층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가격 책정이다. 생애 첫 차로 이제 준중형 승용차가 아닌 소형 SUV를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비도 17.0km/L로 동급 최고수준이다.

차체 크기는 코나보다는 약간 작지만 전장 4140mm, 전폭 1760mm, 전고 1520mm(17인치 타이어 기준), 축거 2580mm의 차체 크기를 구현해 콤팩트하면서도 안정적인 비례를 갖췄다. 또한 이동 가능한 2단 레지시 보드 구조와 2열 시트 플랫 기능을 통해 실내 공간 활용성

을 높였다. 가솔린 모델은 없고 1.6 디젤엔진만 운영된다. 변속기는 7단 DCT(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가 기본 탑재된다. 자동과 수동의 장점을 합친 점단 변속기로 수동변속기에 근접한 우수한 연비와 즉각적인 변속 응답성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고출력 110마력(ps), 최대토크 30.6kgf·m의 동력 성능을 발휘한다. 최고 출력은 동급 중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대신 연비가 높다. 4륜 구동은 선택 불가능하다.

●프리미엄 소형 SUV를 타고 싶다면? 현대차 '코나'

코나의 강점은 분명하다. 기존 소형 SUV에 없던 다양한 고급 안전 사양과 편의 사양을 갖췄다는 점이다. 운전석 및 동승석 에어백, 에어백, 경사로 밀림방지 장치, 급제동 경보 시스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개별 공기압 정보 표시 기능 포함), 세이프티 연락 등 다양한 안전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또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후측방 충

돌 경고 시스템 등이 포함된 첨단 지능형 안전기술 '현대 스마트 센스'를 기본 모델부터 선택할 수 있어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한 수 위다. 국산 SUV 최초로 콤바이너(Combiner)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적용했다는 것도 차별화되는 점이다. 다양한 주행 관련 정보를 운전자의 눈높이에 설치된 별도의 유리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솔린 1.6 터보 GDI 엔진과 디젤 1.6 엔진 두 가지를 운영하며 가솔린 모델에서는 4륜구동 선택도 가능하다.

●시장을 지켜라! 티볼리, QM3, 트렉스

첨단 사양으로 무장한 신차들이 줄줄이 출시됐지만 쌍용차 티볼리는 6월까지 소형 SUV 판매 1위 자리를 지켰다. 코나와 스토닉의 구매 대기 수요가 있었음에도 판매량은 전월대비 1.9% 늘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티볼리의 강점은 분명하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디자인 선호도다. 성능 옵션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는 역시 디자인에서 확실하게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르노삼성 QM3는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소형 SUV 클리어로 시장 방어에 나선다. QM3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실내 인테리어 소재를 업그레이드하고 헤드라이트를 더 예쁘게 손봤다. 아주 큰 변화는 없지만 르노삼성 관계자는 "QM3나 클리어는 원래 재미있게 타는 차고, 연비도 최강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르노삼성차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쉐보레 트렉스는 소형 SUV 전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내외관 디자인과 편의사양을 강화하고 첨단 안전사양을 기본 적용한 블레이드 에디션과 유러피언 주행감성이 녹아있는 6단 수동변속기 모델을 새로 투입했다. 높은 연비와 펀드라이빙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6단 수동변속기 모델 투입으로 제품 기본 가격은 기존보다 160만원 인하된 1695만원부터 시작된다.

더 뉴 트렉스 블레이드 에디션은 18인치 블레이드 투톤 알로이 휠과 크롬 테일게이트 핸들을 적용해 외관 디자인에 차별성을 꾀한 모델이다.

원성철 기자 sereno@donga.com

Pet mate infographic: 강아지 열미에 대처하는 자세. 1. 열미 여부를 확인한다. 2. 강아지와 드라이브를 자주 한다. 3. 주행 중 창문을 적당히 내린다. 4. 차 안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5. 차 안에 강아지 장난감을 준비한다. 6. 주행 중에는 앞쪽을 보게 한다.

To. 반려동물 목욕을 힘들어하는 보호자에게 간식주고, 놀아주고...반려견도 즐거워야 목욕해요



최인영의 반려동물 SOS



동물은 원래 지저분하거나 냄새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오히려 냄새나는 것을 맡고 냄새나는 것을 즐기는 쪽에 가깝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선 목욕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다만 잘못된 목욕법으로 인해 동물들이 목욕을 기피하게 되거나 피부가 손상될 수 있다. 목욕시킬 때는 동물이 적응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단계별로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 목욕이 즐겁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반려견을 목욕시킬 때 보호자가 중간에 자주 자리를 비우면, 반려견은 불안감을 느낀다. 심부, 숨, 수건 등 필요한 목욕용품은 미리 챙겨 반려견을 혼자 두지 말아야 한다.

준다. 만약 동물이 숨 넣는 것을 싫어한다면 생각해도 되지만 물이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은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너무 뜨거운 물로 씻기게 되면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반려동물에게 물을 물릴 때는 미리 적정한 온도의 물을 받아놓고 바가지로 조금씩 부

어서 사용하거나 샤워기를 쓰게 된다면 수시로 물 온도를 체크해야 한다. 또 샤워기를 멀리서 뿌리면 물줄기에 동물이 놀랄 수 있으니 몸 가까이 대고 몸에 먼저 물을 묻혀 씻는다. 머리에 물이 젖게 되면 동물이 물기를 털어내기 위해 계속 머리를 흔들며 보호자가 목욕에 집중하기 힘들다.

동물 피부는 사람과 다르므로 꼭 동물 전용 샴푸를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면 향이 적은 것을 쓰는 것이 좋다. 피부에 샴푸가 남아있으면 가려움증이나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헹구워야 한다.

목욕을 마치면 몸의 물기를 수건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그리고 드라이기를 이용해 미지근한 바람으로 꼼꼼히 털을 말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목욕과정이 끝났다면 보상의 의미로 간식을 제공한다. 목욕 중간에도 간식을 조금씩 제공하거나 장난감을 이용해 놀아주면 반려견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다.

털 길이, 품종, 생활방식, 산책 빈도 등에 따라 적절한 목욕 횟수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 자주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를 보호하는 피지나 각질이 사라져 건조해지고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러브펫동물병원 대표원장

반려견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보람있죠'

서울시 동물매개활동 참여자 선착순 모집

서울시가 8월18일까지 동물매개활동 2017년도 2차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동물매개활동은 보육원, 아이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 취약계층을 방문해 동물과 함께 놀면서 사람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신체 발달을 촉진하는 사회봉사활동이다.

반려견이 있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동물매개활동 교육을 총 4시간 받아야 한다. 이론 40시간, 실습 5시간이다. 교육기간은 8월21일부터 9월1일까지이며, 토요일을 제외한 2주 동안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가나안 감리교회

빌딩 2층에서 진행한다. 교육 이수자는 활동가능 여부를 평가받아 동물매개 활동가로 선정되면 올해 연말까지 활동한다. 경비도 지원받는다.

교육내용은 ▲반려견에 대한 이해 ▲동물 행동학 ▲동물매개활동 ▲아동 및 청소년 발달심리 등이다. 수의사, 동물매개활동전문가, 심리전문가 등 전문가에게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는다. 참여하는 반려견은 정기검진을 통해 기본적인 위생과 건강관리를 받으며, 활동 중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사업수행기관인 (사)위드협(02-715-2445)으로 연락하거나, 인터넷 카페 '서울시동물매개자원활동'(cafe.naver.com/withhab)에서 하면 된다.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100% 휴먼그레이드 킴블 '더:리얼' 출시

하립펫푸드가 '더:리얼'(THE REAL·사진)을 출시했다.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방부제 무첨가 펫푸드라는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국내 최초의 펫푸드 전용 공장인 '해피댄스스튜디오'에서 위생적으로 만든 100% 휴먼 그레이드 킴블(Kibble:견식 펫푸드)이다. 펫팜족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신선하고 건강한 펫푸드임을 강조한다. '더:리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급의 식재료만을 쓰고, 제품 공정에서 관리까지 식품 수준으로 관리·생산된다. 합성보존료와 향미제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다.

닭고기, 연어, 오리고기, 소고기 4종으로 선보이는 '더:리얼'의 각 제품은 세계 유명 브랜드 500여개를 개발한 소동물 영양학 박사가 포뮬라를 개발했다. 모든 제품은 위생적인 보관을 위해 날개 포장이다.

정용문 기자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